

조선시대의 일기자료와 연구동향

김 정 운*

- I. 머리말
- II. 시기별 연구 동향
- III. 주제별 연구 동향
- IV. 일기 내용별 연구 동향
- V. 맺음말

국문초록

본 연구는 일기를 활용한 연구 경향을 검토한 것이다. 시기별 연구 동향과 주제별 연구 성과, 일기의 내용별 연구 성과를 검토하였다. 1990년대 전반, 일기는 ‘일기 문학’의 영역으로 자리하게 되었고, 역사학의 경우 개별 연구의 소재로 활용되었다. 1996년 본격적으로 일기의 자료적 가치에 대해 주목하였고, 일기의 개념과 분류 방식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처음으로 ‘일기류 자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를 토대로 최근에는 유배(流配), 여행(旅行), 상소(上疏) 등 일기의 내용과 호남(湖南), 영남(嶺南)과 같이 일기 생산 지역 등으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연구 영역이 세분되었다.

연구 주제의 측면에서도 다양하고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일기

*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 jeongun@knu.ac.kr

의 개념과 분류 방식에서 기록 주체, 기록 시점, 문체 등 일기를 분류하는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다. 요컨대 조선시대 사람들의 시각으로 ‘일기’를 규정하고, 분류하고 이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논의는 향후 일기의 개념과 분류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기의 내용별 연구 동향을 보면, 지금까지 생활 일기를 활용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관직 생활이나 여행 기록을 활용한 연구로 이어졌다. 지난 20년 동안 일기를 활용한 연구는 양적, 질적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 주제어

일기(日記), 일록(日錄), 일기 개념, 일기 분류, 일기 연구

I. 머리말

일기가 사료 유형의 하나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약 20년 전의 일이다. 그 후 학계에서는 간혹 일기에 대한 정의와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역사학의 연구 주제가 다양해지면서 일기류 자료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렇게 일기는 자료 영역의 하나로 자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기의 개념과 분류 기준에 대한 학계의 논의는 미흡하다.

지난 2016년 조선시대사학회에서 의뢰와 함께 일기를 자료 영역의 하나로 설정하고 당시까지의 논의를 정리한 것은 최근 일기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결과이다.¹⁾ 이런 논의는 향후 일기류 자료를 활용하는 데에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작업이다. 다만 범위와 개념에 대해서는 학계의 포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를 기점으로 학계의 관심을 모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본고는 일기가 자료 영역의 하나로 주목받게 된 이후 현재까지 일기를 활용한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에서 일기류 자료의 활용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일기류 자료에 대한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데에 토대가 되고자 한다.

II. 시기별 연구 동향

1. 일기 연구의 시작과 ‘일기 문학’

일기류 자료를 활용한 연구 가운데 선구는 1959년 渡部學이 조극선의 『야곡일기』를 통해 초등 교육의 실상을 밝힌 것이다.²⁾ 일기류 자료

1) 박현순, 「문집을 통해 본 조선시대 일기와 일기쓰기」, 『조선시대사학보』 79, 2016.

2) 渡部學, 「17世紀朝鮮における初等教育の形態— 治谷趙克善をめぐって—」, 『武藏大學論集』 7-2·3·4, 1959.

를 역사학에서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이후 이와 관련한 추가 연구는 확인되지 않는다. 일기류 자료를 활용한 연구는 1970년대 후반 사행 기록을 활용한 연구에서 다시 시작되었다. 김태준은 김성일(金誠一, 1538~1593)의 사행 기록을 활용하였고,³⁾ 심준우는 김육(金堉, 1580~1658)의 사행 일기를 통해 조선과 명나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⁴⁾ 관직 생활 가운데서도 사행 기록은 수량이 많고, 단일 주제로 많은 자료를 묶을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일찍부터 활용되었다.

일기를 본격적으로 활용한 연구는 1980년대 이후에 와서 이루어졌다. 이 시기 연구는 일기에 반영된 문학적 성격을 읽어내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이른바 유산(遊山)이라는 여행 기록과 사행 기록들을 문학의 시각에서 연구하였다. 이런 인식은 최강현의 『한국기행문학연구』에서 볼 수 있다.⁵⁾ 단편적으로 활용되던 일기를 하나의 주제로 묶어서 자료 영역의 하나로 설정한 것은 중요한 변화였다.

1990년대 전반까지 일기는 문학의 한 영역으로 자리를 분명히 하였다. 1990년대 전반에 발표된 문학사는 이런 성과를 반영한 것이었다. 조동일은 『한국문학통사』에서 일기를 문학의 여러 형식 가운데 하나로 분류하여 본격적으로 ‘일기 문학’이라는 범주를 설정하였다.⁶⁾ 또 같은 시기 이우경은 『한국의 일기문학』에서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일기를 이해하였다.⁷⁾ 이런 경향을 토대로 일기를 문학사적인 입장에서 정리한 것이 정하영의 「朝鮮朝 ‘日記’類 資料의 文學史的 意義」이다.⁸⁾

이 시기 역사학에서도 일기를 활용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모두 20여편이 확인된다. 구완회는 「조선 증엽 사족 열자녀의 속량과 혼인: 미암일기를 통한 사례 검토」를 발표하였다.⁹⁾ 최승희는 「조선후

3) 김태준, 「鶴峯 金誠一의 日本日錄」, 『明知語文學』 8, 1976.

4) 심우준, 「金堉의 「朝京日錄」-특히 丙子胡亂時의 朝明關係를 中心으로-」, 『韓國學』 21, 1979.

5) 최강현, 『한국기행문학연구』, 일지사, 1982.

6)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 지식산업사, 1994.

7) 이우경, 『한국의 일기문학』, 집문당, 1995.

8) 정하영, 「朝鮮朝 ‘日記’類 資料의 文學史的 意義」, 『정신문화연구』 19, 1996.

기 양반의 사환과 가세 변동: 선산 무반가 노상추의 사례를 중심으로」에 대해 연구하였다.¹⁰⁾ 이성임은 「조선중엽 양반관료의 경제생활에 관한 일연구: 류희춘의 미암일기 분석을 중심으로」가 있고¹¹⁾, 오상근은 「쇄미록과 오희문의 생애-피난길에 쓴 난중일기」에 대한 연구가 있다.¹²⁾ 이들은 일상 생활 일기를 활용한 것이다. 이와 성격을 달리하여 유봉학은 「일록 『공사기고』에 나타난 19세기 서리의 생활상」에서 서리의 관직 생활에 대해 밝혔고¹³⁾, 남달우의 「선조 초기(1567~1581)의 정국과 사림: 이이의 『경연일기』를 중심으로」는 경연일기를 활용한 사례이다.¹⁴⁾ 이상은 이 시기의 대표적인 연구 성과이다.

이들 연구는 향후 일기를 활용한 연구에 기여한 바가 크다. 우선 연구 대상이 『미암일기』, 『노상추일기』, 『쇄미록』 등을 활용하였다는 점이다. 이들 일기는 이후 현재까지 여러 학문 분야에서 가장 많이 연구하는 자료이다. 그런 점에서 일기를 활용한 연구의 출발점이 된다. 또 연구 주체가 열자녀, 무신, 서리 등 선행 연구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소위 사회적 비주류였다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연구들은 향후 일기를 활용한 연구에서 중요한 선례가 되었다.

한편 연구 방식은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재구성하여 실생활에 접근하여, 일기의 장점을 활용하였다. 일상 생활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거나, 관찰 자료를 중심으로 정국을 논의하던 데서, 일기를 활용하여 정국 운영의 실제 모습을 밝히고, 의례서나 법전에 담긴 관념이 실생활에서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지를 확인한 연구는 일기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

9) 구원희, 「朝鮮 中葉 士族孳子女의 贖良과 婚姻: 『眉巖日記』를 통한 사례검토」, 『경북사학』 8, 1985.

10) 최승희, 「朝鮮後期 兩班의 仕宦과 家勢變動-善山 武班家 盧尙樞의 事例를 中心으로」, 『韓國史論』 19, 1988.

11) 이성임, 「朝鮮中葉 兩班官僚의 經濟生活에 관한 一研究-柳希春의 『眉巖日記』分析을 中心으로-」,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12) 오상근, 「瑣尾錄과 吳希文의 생애-피난길에 쓴 「亂中日記」-」, 『畿甸文化』 7, 1990.

13) 유봉학, 「日錄 『公私記攷』에 나타난 19세기 書吏의 생활상」, 『규장각』 13, 1992.

14) 남달우, 「宣祖 初期(1567~1581)의 政局과 士林: 李珣의 『經筵日記』를 中心으로」, 『仁荷史學』 1, 1993.

을 보여주었다.

요컨대 초기 일기를 활용한 연구는 그 수가 적은 반면, 소재나 주제, 연구 방법에 있어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대체로 개별적인 연구에 일기를 활용한 데에 머물렀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문학에서 일기를 하나의 자료 영역으로 설정하는 것과 같이 일기의 자료적 성격이나 개념과 분류 방식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이 이 시기의 한계라고 하겠다.

2. ‘일기류 자료’의 자리매김

일기가 역사학에서 하나의 자료 영역으로 분류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후반이다. 일기에 대한 인식이 변화한 계기는 정구복의 「조선조 일기류 자료와 내용에 대한 종합적 검토」였다.¹⁵⁾ 여기서 일기의 개념을 규정하고, 자료의 성격에 따라 분류를 시도하는 등 ‘일기류 자료’에 대해서 처음으로 종합 조사를 시도하였다. 같은 시기 염정섭은 「조선시대 일기류 자료의 성격과 분류」에서 역시 일기를 독립적인 자료 영역으로 보고 종합적인 연구를 시도하였다.¹⁶⁾

이 두 연구는 일기의 사료적 가치를 인식하게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일기는 ‘일기 문학’에서 비로소 ‘일기류 자료’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다만 일기의 개념과 분류 방식 등은 일기 자료가 다양하게 소개되고, 개별 연구자의 논의가 종합되고, 일기를 활용한 연구가 누적된 토대 위에서 논의될 수 있는 것이다. 당시 선학들의 논의는 학계의 종합적인 논의로 발전하지는 못하였다.

이 시기에 일기를 활용한 연구 역시 크게 증가하였다. 대체로 1990년대 후반에 해당하는 이 시기에 역사학의 연구 방법 역시 크게 다른 면모를 보인다. 이 시기에 일기를 직접 활용한 연구는 70여편 확인되며,

15) 鄭求福, 「朝鮮朝 日記의 資料的 性格」, 『정신문화연구』 19-4, 1996.

16) 염정섭, 「조선시대 일기류 자료의 성격과 분류」, 『역사와 현실』 24, 1997.

간접적으로 활용한 연구를 포함하면 연평균 10여편 정도였다. 즉, 1990년대 전반까지 연구의 서너배 이상이다. 이러한 수치는 일기 자료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시기 일기를 활용한 주요 연구는 다음과 같다. 송재용의 「미암일기 연구」는 처음 일기를 활용한 박사학위논문이고¹⁷⁾, 전성호의 「조선후기 米價史 연구(1725~1875)」는 경제학에서 일기를 활용한 박사학위논문이며¹⁸⁾, 안승준의 「조선전기 사노비의 사회경제적 성격」은 일기와 고문서를 종합적으로 활용한 박사학위논문이다.¹⁹⁾

또 문학과 역사학 이외의 학문 분야에서 일기를 활용한 연구가 이어진 것도 주목할 변화이다. 전성호의 「조선후기 米價史 연구(1725~1875)」, 이복규의 「목재일기에 나타난 출산·생육 관련 민속」²⁰⁾, 김호의 「16세기 후반 京·鄕의 의료 환경: 미암일기를 중심으로」²¹⁾, 김소은의 「이문건의 생애와 목재일기의 구성」²²⁾, 정창권의 「미암일기에 나타난 송덕봉의 일상생활과 창작활동」²³⁾, 남미혜의 「16세기 사대부 이문건의 양잠법 경영에 대한 일고찰-목재일기를 중심으로」²⁴⁾, 배현숙의 「선조초 지방 책판고」²⁵⁾, 정정남의 「16·17세기 사대부 주택의 공간구성과 활용」²⁶⁾, 이민주의 「『미암일기』를 통해 본 복식의 유통 양상과 그 특징」²⁷⁾, 박미혜의 「유교적 젠더 정체성의 다층적 구조-『미암일기』, 『목재

17) 송재용, 「미암일기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18) 전성호, 「조선후기 米價사 연구(1725-1875)」,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19) 안승준, 「朝鮮前期 私奴婢의 社會經濟的 性格」,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999.

20) 이복규, 「『默齋日記』에 나타난 出產·生育 관련 民俗」, 『溫知論叢』 3, 1997.

21) 김호, 「16세기 후반 京·鄕의 의료 환경: 『眉巖日記』를 중심으로」, 『대구사학』 64, 2001.

22) 김소은, 「李文樞의 生涯 默齋日記의 구성」, 『洪景萬教授停年紀念 韓國史學論』, 2002.

23) 정창권, 「『미암일기』에 나타난 송덕봉의 일상생활과 창작활동」, 『어문학』 78, 2002.

24) 남미혜, 「朝鮮前期 養蠶業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25) 배현숙, 「宣祖初 地方 冊板考」, 『書誌學研究』 25, 2003.

26) 정정남, 「16·17세기 사대부 주택의 공간구성과 활용」,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27) 이민주, 「『眉巖日記』를 통해 본 복식의 유통 양상과 그 특징」, 『역사민속학』 23, 2006.

일기』, 『쇄미록』, 『병자일기』를 중심으로」²⁸⁾ 등이 있다. 이들 연구는 학문 분과로 보면 경제학, 민속, 여성 문학, 사회학, 여성학, 서지학, 양잠 산업, 건축학 등에 해당한다.

이 시기에는 특정 주제에 대해 기록한 일기 연구 역시 크게 증가하였고, 내용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종학의 「명량해전의 군사사학적 연구」²⁹⁾, 이선정의 「『열하일기』에 나타난 19세기 초 중인 의관의 청 문물 인식」³⁰⁾, 안길정의 「『조행일록』으로 본 19세기 조운의 운영실태」³¹⁾ 등은 전쟁 체험 일기, 사행 참여자의 일기, 조운 담당 관리의 일기 등을 통해서 군사학, 대외교류, 조운 실태 등을 다루었다.

이 시기 일기를 활용한 연구는 양적인 증가와 활용한 자료가 다양해진 점이 주목된다. 일기류 자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자료의 발굴과 조사 정리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처음으로 공개된 일기가 대거 증가한 것이 주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였다. 이와 같이 일기를 활용한 연구가 증가하고, 한편으로는 자료의 발굴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새로 소개되는 일기류 자료의 종류와 수량이 크게 늘면서 일기의 개념과 분류 방식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이런 학계의 요구는 황위주의 「조선시대 일기자료 목록」³²⁾으로 수렴되었다. 이것은 처음 일기가 하나의 자료 영역으로 인식된 이후 10여 년이 지난 때였고, 일기가 연구에 본격적으로 활용되면서 자료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요구되는 시점에 발표된 중요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이후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일기 자료의 개념과 분류, 수집과 활용 방안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28) 박미혜, 「유교적 젠더 정체성의 다층적 구조-『미암일기』, 『목재일기』, 『쇄미록』, 『병자일기』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79, 2008.

29) 이종학, 「명량해전의 군사사학적 연구」, 『해양戰略』 132, 2006.

30) 이선정, 「『赴燕日記』에 나타난 19세기초 中人 醫官의 淸 文物 認識」, 『歷史教育論集』 45, 2010.

31) 안길정, 「『조행일록』으로 본 19세기 조운의 운영실태」, 『史林』 29, 2008.

32) 황위주, 「조선시대 일기자료 목록」, 『(국역)조선시대 서원일기』, 한국국학진흥원, 2007.

3. 일기 종류의 다양화와 연구의 세분화

최근 일기 연구의 급성장은 20세기 서양에서 일어난 역사학 패러다임의 변화가 영향을 준 결과였다. 19세기의 서양에서 역사 서술의 중심은 국가와 국민, 정치·외교·전쟁, 그리고 남성 엘리트였다. 그러나 20세기 초에 프랑스의 아날학파가 사회·경제사를 역사학의 중심 과제로 삼으면서, 역사학의 패러다임이 계속 변화하였다. 20세기 후반, 미국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다. 유색인종·여성·노동계급 등 비주류 집단 출신이 역사학계에 진출하면서, 역사 연구의 지평이 활짝 넓혀졌다.³³⁾

요컨대 역사 연구의 주제와 방법이 매우 다양해졌다. 이제 역사 서술의 단위는 국가가 아니라, 한 마을과 지역에서 세계의 모든 대륙과 대양으로 확장되었다. 역사 서술의 주인공도 지배층 남성에서 여성·소수자·노동계급 등으로 확대되고, 커피와 설탕 등 물질 영역까지 아우른다. 연구 방법도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미시사·일상사·심성사 등 새로운 분야도 열렸다. 20세기 말, 새로운 역사학이 국내에 소개되더니, 최근에는 조선시대 연구에 큰 활력소가 되었다.

이런 조류는 2000년대 이후 한국 학계에 본격적으로 반영되었다. 관찬 사료를 중심으로 국가나 개인(영웅)에 주목하던 역사 서술의 한계를 인식하고, 집단의 의식이나 국가나 공공 영역에 대칭적 개념으로 개인 혹은 민간이 역사의 주체로 상정되었다.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와 같은 주제를 내건 책이 등장하였고, 이런 연구를 뒷받침하는 사료가 주목받았다.

이런 경향에서 일기는 매우 유용한 자료로 인식되었다. 일기는 개인 혹은 민간의 단체가 자신의 관점에서 일상 혹은 비일상적인 일들을 기록한 자료로 주목받았다. 이런 선도적인 노력은 이전 시기에도 확인할 수 있으나, 학계에 주된 흐름으로 자리하게 된 것은 2010년 이후이다. 연구 성과의 양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그 이전까지 생산된 연구 성과의

33) Maza Sarah C 지음·박원용 번역, 『역사에 대해 생각하기』, 책과 함께, 2019.

수량은 2010년 이후에는 매년 1년 동안 발표된 수량과 맞먹기에 이르렀다. 2010년부터 일기 자료를 직접 활용한 연구는 매년 20여 편에 달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일기를 간접적으로 활용한 연구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늘어날 것이다.

활용 대상의 측면에서 보면 일기의 종류가 다양해졌다. 『미암일기』, 『목재일기』, 『쇄미록』 등은 1980년대부터 사용되어 현재까지도 매년 3~4편의 논문이 확인된다. 여기에 『노상추일기』, 『고대일록』, 『계암일록』, 『매원일기』, 『청대일기』, 『부북일기』 등이 연구에 본격적으로 활용되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자료를 조사하여 발굴하면서 해제와 번역 사업이 이루어지고, 일기 자료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한 해에 특정 일기의 연구가 집중되는 현상이 있다. 이를테면 『고대일록』 연구 15편 가운데 절반이 2010년에 나왔다. 『청대일기』는 2016년에 5편, 『역중일기』는 2019년 5편, 『인재·야곡일기』는 2017년 2017년과 2018년에 9편, 『목재일기』는 8편이 2013년에 나왔다. 또 『계암일록』은 2013년과 2014년, 『매원일기』는 2017년에 연구가 집중되었다. 이 시기에 번역서가 간행되고, 공동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연구 방식의 측면에서 보면, 연구 주제가 세분화 하였다. 조수미의 『조선후기 한글 유배일기 연구』³⁴⁾, 김미선의 「조선시대 기행일기의 범주에 대한 논의」³⁵⁾, 최은주의 「조선시대 상소 일기자료의 실상과 가치」³⁶⁾는 유배, 기행, 상소 등을 연구 소재를 사용한 것이다. 또 김미선·김대현의 「호남지방 일기자료 연구의 현황과 과제」³⁷⁾는 처음으로 일기 생산 지역의 중요성을 확인시켰고, 정병욱·이카가키 류타의 『일기를 통해 본 전통과 근대 식민지와 국가』³⁸⁾와 정병욱의 「1919년 삼일운동과 일기

34) 조수미, 『조선후기 한글 유배일기 연구』, 경진, 2016.

35) 김미선, 「조선시대 기행일기의 범주에 대한 논의」, 『국학연구』 35, 2018.

36) 최은주, 「조선시대 상소 일기자료의 실상과 가치」, 『석당논총』 72, 2018.

37) 김대현·김미선, 「호남지방 일기자료 연구의 현황과 과제」, 『호남문화연구』 58, 2015.

38) 정병욱·이카가키 류타, 『일기를 통해 본 전통과 근대 식민지와 국가』, 소명출판, 2013.

자료」³⁹⁾는 근대사 연구에 일기를 활용한 경우이다.

이와 같이 일기를 활용한 연구가 다양해진 것은 일기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박현순의 「문집을 통해 본 조선시대의 일기와 일기쓰기」⁴⁰⁾는 일기에 대한 여러 방향의 논의를 종합하고, 일기의 의미를 다시 부여하고자 하였다. 우선 일본과 중국, 유럽에서 일기에 대한 개념과 연구 경향을 검토하고, 조선시대 사람들이 사용하던 일기, 일록의 활용 사례를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서 일기에 대한 기존의 정의에 상당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일기의 글쓰기 형식을 ‘산문’으로 제한한 것이나, 날짜별로 기록해야 한다는 것, 작성 주체는 개인이어야 한다는 것, 또 기록은 사건의 발생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등 기존 학계에서 일기의 개념에서 핵심적으로 언급하던 요소에 대해서 조선시대 사람들의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런 지적은 일기류 자료의 개념과 분류, 조사 방식과 연구 방법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Ⅲ. 주제별 연구 동향

1. 일기의 개념과 분류

역사학 분야에서 일기에 대한 개념과 분류를 시도한 최초의 연구는 정구복의 「조선조 일기의 자료적 성격」이다. 이 연구는 처음으로 일기를 역사성을 가진 기록의 형태로 파악하고, 개념과 분류를 시도하여 일기를 ‘문학’에서 ‘일기류 자료’로 자리매김한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이 연구가 일기 연구에 기여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덕순의 『한국수필문학사』⁴¹⁾를 인용하여 ‘일기는 개인이 매일

39) 정병욱, 「1919년 삼일운동과 일기 자료」, 『한국사학보』 73, 2018.

40) 박현순, 앞의 논문, 2016.

매일 경험한 바를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형식은 산문이며, 수필 문학의 범주에 속한다.'라고 하였다. 일기는 '일록(日錄)' 또는 '록(錄)', '기(記)' 등으로 기록된 것이 많기 때문에 제목만으로 구별하기 어렵고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하였다. 개인, 즉시성, 산문 문체 등을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즉 일기를 남긴 이들이 인식하는 일기의 개념과 연구자가 사용하는 개념에 일정한 간극이 있었다.

둘째, 일기가 역사성을 가진 기록물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 일기 쓰기는 16세기 이후에 지식인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즉, 조선시대의 사관 제도에서 실록의 글쓰기 방식이 지식인들 사이에 확산된 결과라고 보았다. 대체로 16세기 이후 독서층[士族]의 성장과 함께 일기가 증가하였고, 17세기를 지나면서 지식인의 보편적인 글씨기로 자리한 것으로 보았다. 일기가 역사성을 담은 자료라는 지적은 향후 일기를 활용한 연구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셋째, 이에 맞추어 일기를 분류하였다. 우선 일기는 문자 형태에 따라 한문과 국문으로 나누고, 작성 주체에 따라 공적(公的)일기와 사적(私的)일기로 구분하였다. 승정원일기와 각사등록, 개인 문집에 있는 경연일기는 공적 일기이다. 또 일기의 기간이나 대상에 따라 생활일기와 특수일기로 나누고, 생활일기는 관료생활, 농가일기, 선비의 일기, 기타 생업일기로 나누었다. 특수일기는 사행록, 표류일기, 여행일기, 전쟁일기, 피난일기, 유배일기, 營建일기, 築城일기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필자는 의례도 넓은 의미에서는 일기에 포함하였다. 일기가 개인의 기록이라고 하면서도 광해군일기, 연산군일기, 승정원일기, 각사등록, 의례를 넣어서 필자가 설정한 일기의 개념과 예시가 상충되는 모순이 있다.

넷째, 이에 해당하는 일기 목록을 제시하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문집, 국사편찬위원회와 한국정신문화연구원(현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수집-미발간 일기 등 300여 건의 목록을 제시하였다. 목록에 연산군일

41) 장덕순, 『한국수필문학사』, 새문사, 1985.

기와 광해군일기, 승정원일기가 포함된 점은 해당 분류의 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자료 활용에서 유의할 점에 대해 강조하였다. 문집에 수록된 일기는 필사본 일기와 비교해서 본래 기능이 많이 훼손된 상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하였다. 다만 일기는 고문서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고문서는 결과만 담고 있는 데에 반해 일기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탁월하다고 평가하였다. 일기는 주관적 기록이지만 중세 유학자들의 일기는 주관적 요소가 극히 절제되어 있고, 개인적이고 지역적인 특수성에 유념하여 분석한다면, 일기는 한 인간의 삶 전체에 대한 모습을 함께 얻을 수 있는 자료임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일기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지금까지 역사는 통치자나 지배자 중심으로 이해해 왔으며, 이런 관점을 탈피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대에 일기는 활용 가치가 높은 자료임을 지적하였다. 다만 일기 작성자도 지배층이라는 점을 의식하고 활용한다면, 생활사나 지방사 연구에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일기를 활용할 때는 문집본의 경우 원전과 함께 검토하고, 관련 문헌자료, 고문서, 족보류, 지리지와 연계해서 연구해야 종합적인 이해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 때문에 일기는 공동 연구가 필요한 분야임을 강조하였다.

2. 일기의 성격과 분류

염정섭의 「조선시대 일기류 자료의 성격과 분류」는 일기 개념을 설정하고 분류를 시도하였다. 주로 조선시대 일기의 성격에 대해 다양한 논점을 제시한 점이 주목된다. 본 연구가 기여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기는 날짜 순서에 따라 기록한 기록물로 현장성과 즉시성이 필요 요건이라고 보았다. 다만 단속적으로 이어지는 기록을 포함하며, 달력 여백을 활용한 기록 역시 일기로 보았다. 실록의 ‘일기’는 제외하였고, 관청 일지는 포함하였으며, 개인의 연보는 제외하였고, 간행된 문집에 수록된 일기는 2차 사료로 보았다. 일기를 규정하는 여러 요소 가운

데 연속적 기록이라는 측면을 강조하였고, 매일 혹은 일정 기간 모아서 기록한 것도 일기로 보았다. 이를테면 『열하일기』는 당시(즉시성 획득)에 메모한 것 뒤에 모아서 하나의 기록으로 정리한 것이므로 일기에 포함하였다.

둘째, 일기 연구는 무엇보다 공동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일기는 개인 기록물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사회적 산물이고, 주관적 기록이지만 객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지배층의 기록이면서 지배층의 눈에 비친 피지배층을 읽어낼 수도 있고, 단기 기록이지만 장기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였다. 이런 지적은 일기의 가치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였다.

셋째, 일기의 기록 배경에 대한 의견이다. 일기는 조선시대 과거(科擧)를 준비하는 지식인들이 한문 작문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연습이면서, 자신의 견문을 기록하여 후세에 전달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즉 조선시대 일기는 지식인의 역사에 대한 안목과 관심이 일기 서술로 이어진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이정규의 말을 인용하여 ‘일을 서술하고, 사실을 기록하고, 경계를 권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넷째, 일기의 자료적 특징으로 작성자가 분명하고, 즉각적이고 수정증보를 통한 변개의 위험이 적은 원천성이 있다고 하였다. 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자료이므로 시대의 보편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작자가 판단해서 선택한 부분만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의도적인 미화나 혹은 누락 가능성이 있고, 개인적인 성격에서 오는 편협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한 개인의 기록이지만 당시의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고, 지방통치의 실상 즉 국가의 제반 정책이 실제로 수행되는 상황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유용한 자료라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분류 방식이다. 기록 수단을 기준으로 한문과 한글일기로 나누는 것은 앞의 연구와 동일하다. 여기에 필자의 성격과 내용의 성격을 반영하여 분류를 시도하였는데, 필자의 성격에서 남성-여성, 사족-비사족, 관인-비관인으로 나누어 여성일기, 사환일기, 사족일기, 서리일기,

사행일기, 관청일기 등으로 분류하였다. 내용을 기준으로 하면, 여행일기, 사행일기, 피란일기, 진중일기, 사환일기, 농사일기, 문학일기, 표류일기, 토벌일기, 궁중일기, 추국일기, 유배일기 등 무궁한 분류가 가능하므로 생활일기, 사환일기, 사행일기, 전란일기, 관청일기(사무기록이며 집필자 불명확하고, 관청을 하나의 인격체로 간주할 경우에 분류가 가능), 여행일기, 사건일기 등을 언급하였다. 내용에 따른 분류는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분류 작업의 의미가 다소 퇴색한 한계가 있다.

이렇게 분류한 다음 각각의 예를 제시하였다. 생활일기의 경우 구상덕의 『勝聰明錄』, 사환일기는 서유구의 『華營日錄』와 김익의 『竹下日記』, 유희춘의 『眉巖日記』, 황사우의 『在嶺南日記』를 대표적인 것으로 보았다. 또 사행일기는 다양한 조천록, 조천일기, 연행록, 연행일기, 동사록, 해사록이 있으며, 박지원의 『熱河日記』를 그 대표로 보았다. 전란일기의 경우 이순신의 『亂中日記』, 오희문의 『瑣尾錄』, 정호인의 『丁酉避亂記』, 이로의 『龍蛇日記』, 『병자일기』, 관청일기의 경우 각 기관의 등록은 일기의 형식을 가지고 있으나 판단을 보류하였다. 여행일기는 정시한의 『山中日記』와 송주상의 『東遊日記』, 민영환의 『使英德俄義法澳日記』 등을 꼽았다. 사건일기는 최부의 『錦南漂海錄』, 서원·향교의 각종 營建日記 등을 들었다.

본 연구에서 필자는 선행 연구에서 포함하였던 실기류는 제외하였고, 사건 발생 시점에서 멀지 않은 시점에 기록한 기록물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또 일기는 당사자가 직접 기록한 것을 전제로 하며, 이 원본 기록을 가지고 있다면 본인 혹은 타인이 재정리한 것까지 일기로 포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3. 일기의 종합 조사와 목록

이후 일기에 한 논의는 황위주의 「조선시대 일기자료의 현황과 활용 방안」에서 이루어진다. 일기는 개인이나 기관 단체 등에서 그들의 생활 체험과 업무에 관련된 여러 사항을 날짜 순서에 따라 정리해 놓은 기록

물로 규정하였다. 일기, 일지, 일성, 일승, 일력, 록, 기 등으로 다양하게 명명된 자료를 포괄해서 일기로 보았다. 이런 일기는 문집이나 저술과 달리 그날그날 경험을 가감없이 기록해 둔 자료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으며, 왜곡이나 변조의 가능성이 적고 획일적 거대 담론에 가려졌던 역사의 실체적 진실을 드러낼 수 있으면서, 하찮은 것으로 간주했던 각 지역의 자잘하고 다채로운 생활 문화의 실상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평가하였다.

이와 함께 일기의 현황, 분류,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당시까지 논의된 일기의 개념과 분류 방식을 참고하여 포괄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여기세 제시한 목록의 특징은 개인과 기관 단체의 일기를 포괄하였다는 점이다. 이런 기준에서 일기의 수량을 파악하여, 각 기관별로 소장된 1600여건의 일기 목록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규장각 431건, 서울대 23건, 국사편찬위원회 198건, 국립중앙도서관 134건, 한국국학진흥원 129건, 장서각 122건, 고려대 61건, 존경각 36건, 연세대 22건, 국회도서관 10건, 기타 국내외 대학도서관 28건, 문집과 저술 362건, 논저 46건으로 모두 1602건을 확인하였다. 당시까지 일기의 종합조사와 목록이 없는 상태에서 많은 일기를 종합적으로 파악한 점에서 기여한 바가 크다. 이후 일기 자료의 발굴과 해제 등의 작업이 이어지면서 각 기관별 소장 수량은 크게 늘어났다. 예를 들어 한국국학진흥원의 경우 현재 소장한 일기류 자료가 1000여건에 이르는 것이 확인된다. 대학에서 소장한 일기 자료의 경우에 목록이 부실하고 공개를 꺼리는 경우가 있어서 목록에서 누락된 경우도 있었다.

이를 대상으로 작성 주체, 시기, 내용을 기준으로 일기를 분류하였다. 작성 주체별로 보면, 1602건 가운데 확인 가능한 것은 1200여건이고, 개인 일기가 948건, 국가기관일기 가운데 중앙관청일기가 233건, 지방관청일기가 10건이며, 기타 단체 및 문중일기는 9건, 미확인 402건이다. 개인과 민간 단체는 물론, 중앙관청과 지방관청의 일기를 모두 포함한 것은 향후 일기 개념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조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시기별 분포 현황(시작 시점 기준)을 보면, 필자가 확인 가능한 1340건을 대상으로 시기별 추이를 보여주었다. 대체로 조선시대 일기는 수적인 측면에서 16세기에 비약적으로 증가하였고, 17~18세기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19세기 일기의 전성시대라고 할만한 정도였다. 20세기에 오면 조선시대의 일기 쓰기 방식이 사라진 것으로 보았다. 일기의 분포 현황에서 시기별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한 부분은 중요한 성과이다.

<시기별 분포 현황>

시기	14	15	16	17	18	19	20	미상	종합
현황	4	11	165	243	305	437	178	259	1340

다음으로 일기를 내용별로 분류하였다.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일기 1180건에 대해 관청 일지, 공동체 일지, 개인 생활 일기로 나누고, 관청 일기와 일지 296건, 공동체 일기와 일지 78건, 개인의 생활일기 804건으로 파악하였다. 관청 일지의 경우 국왕 왕실, 중앙-지방 관청이 있고, 공동체의 경우 서원, 향교, 여당 등이 주체가 되었다. 이 연구는 일기자료의 종합 지형도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일기의 조사와 발굴, 연구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기준이 되었다.

4. 일기 개념의 재정립

가장 최근에 일기의 개념과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는 박현순의 「문집을 통해 본 조선시대의 일기와 일기쓰기」이다. 필자는 일기의 기원을 국가의 공적 기록에서 찾았다. 일기의 개념은 중국, 일본, 유럽의 사례와 비교하여, 조선시대 기록을 남긴 이들의 시각을 염두에 두고 판단하고자 하였다. 필자는 일기가 개인이 기록한 다양한 형식의 기록이며, 관찬기록이 포착하기 어려운 개인의 체험과 인식을 보여주는 자료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개인의 체험과 인식은 종합적이고 객관적 사실이라기보다 개인의 시선에서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재구성된 사실이며, 그 특성에 주

목하여 작성의 주체가 그 시대를 어떻게 체험하였는가 하는 관점에서 역사상에 접근한다면 인간의 삶을 주제로 한 다른 방식의 역사를 구성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지금까지 일기의 주관성은 한계로 지적되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은 장점이 될 수 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일기의 개념은 역사학 연구 방식과 궤를 같이 하여왔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일기에 대한 개념과 분류를 시도하였고, 그로부터 10년 후 일기에 대한 개념 규정을 다시 시도하였고, 종합 목록을 작성하였다. 이런 연구를 통해서 현재 학계에서 일기는 ‘일기류 자료’로 분명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일기의 개념과 분류 방식은 시기별로 차이가 있다. 초기에는 문학의 개념을 인용하였다. 일기는 ‘개인의 경험을 당시에 매일매일 기록한 것’으로 작성 주체에서 개인-즉시성-날짜별 기록 등이 핵심적인 기준이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일기를 정의하는 기준은 확대되었다. 개인은 물론 공동체도 일기 기록의 주체이고, 날짜가 분명히 기록되지 않더라도 시간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으면 일기로 본다. 즉시성의 경우, 사건 발생 시점에서 다소 시간이 지난 후에 기록한 것도 포함하며, 타인에 의해 정서된 것도 일기로 분류하는 데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일기의 핵심 요건은 무엇인가. 일기의 개념 정립과 분류 작업은 개인 연구자가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제 일기류 자료의 개념과 범위, 조사와 분류 방식에 대해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IV. 일기 내용별 연구 동향

일기를 활용한 연구는 2000년대 이후 크게 증가하였다. 최근 10년 동안 일기의 번역 작업이 활발하였고, 연구에 활용되는 일기의 종류는 다양해졌다. 여기서는 일기를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연구 성과를 검토해 본다.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일기를 분류하면 다음 표와 같다.

<일기 내용의 종류>

내용 분류	세부 분류
생활	일상 생활
관직	사환, 사행(연행, 조천, 해사), 경연 등
전쟁	종군, 의병, 창의, 호종, 피란
유배	유배 생활
강학	거점, 통강록
여행	유산록, 여행기
고종	고종, 문상, 장례
독립 운동	망명, 이민, 독립 투쟁
공동체 활동	출판, 건축, 상소, 향교일지, 서원일지, 강회, 입석·석각, 제향

각 항목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범위는 국가 기관에서 해당 기관 명의로 작성한 일지를 제외하고, 개인 혹은 민간에서 작성된 기록으로 한정하였다. 생활 일기는 특정한 주제 없이 일상 생활을 기록한 것으로 내용이 매우 다양한 점이 특징이다. 『미암일기』(유희춘), 『목재일기』(이문건), 『쇄미록』(오희문), 『초간일기』(권문해), 『계암일록』(김영), 『매원일기』(김광계), 『인재·야곡일기』(조극선), 『청대일기』(권상일), 『역중일기』(최흥원), 『노상추일기』(노상추) 등은 방대한 분량의 대표적인 생활 일기이다. 관직 일기는 사환, 사행, 경연에서 기록한 내용이다. 지방 관청의 관리자가 기록한 것은 사환 일기로 분류하며, 특정 직위에 있을 때의 일을 기록하여 정리한 것을 포함한다. 『서수일기』(박내겸), 『고성총쇄록』(오형묵), 사행 기록 등이 해당한다. 전쟁일기는 전쟁 기간에 쓴 일기로, 종군, 의병, 창의, 호종에 관한 내용이다. 대표적인 것은 『난중일기』(이순신), 『임진일기』(조정), 『향병일기』(김해), 『용사일록』(정탁) 등이 있다. 유배 일기는 유배의 시작과 함께 기록한 일상 일기이며, 유배인을 수행한 사람의 기록은 시종 일기로 분류하였다. 『간정일록』(김영), 『북관노정록』(유의양), 『속음청사』(김윤식), 『남천일록』(심노승) 등은 대표적인 유배일기이다. 강학 일기는 강학의 사정을 기록한 것으로 독서나 강회 기록이 해당한다. 『자암일록』(노상직), 『초서릉』(안정복), 『書林日緯』(홍

길주) 등이 있다. 여행 일기는 여행의 시작과 함께 기록한 것으로 대개 주제별로 분리되어 있다. 『금성일기』(이지현), 『지암일기』(윤이순), 『산수심원록』(정약용) 등을 들 수 있다. 고종·문상일기는 고종에서 문상 장례 까지에 대한 기록을 정리한 것이다. 공동체 일기의 경우 종류가 다양하다. 우선 공동체의 형태에서 지역공동체, 가문·문중공동체, 동갑, 학계, 도회나 시사 등이 있고, 내용에서는 건축, 출판, 상소, 강회, 입비 등 공동체 활동과 관련한 기록이다.

이렇게 분류해 볼 때, 역사학 연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분야는 생활 일기에 집중해 있다. 일기의 성격을 개인의 사적인 감정을 담은 기록으로 인식하고 접근할 경우 그 본질에 가장 충실한 것이 소위 생활 일기로 분류된 것들이다.

1. 생활 일기를 활용한 연구

생활 일기는 보편적인 인식에서 볼 때 전형적인 일기에 해당한다. 생활 일기는 기록 기간이 수십 년에 이르고, 세대를 이어 기록하기도 하며, 반대로 같은 시기에 서로 다른 가족 구성원이 각자 기록한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생활 일기는 다양한 시각에서 해당 시기의 생활상에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직접 활용한 연구는 1990년대까지 20여 편이 확인되고, 2000년에서 2009년까지 10년 동안 그 두 배에 달하는 40여 편의 연구가 나왔으며, 2010년 이후에는 매년 2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를 토대로 연구의 특징을 찾으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수의 일기에 연구가 집중된다. 『미암일기』와 『목재일기』는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며, 여러 편의 박사학위논문이 있다. 『목재일기』 연구는 60여 편이고, 『미암일기』는 40여 편이 확인된다. 간접적으로 활용한 연구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두 배 이상 증가한다. 일기류 자료를 활용한 역사학 연구의 시초에 해당하는 것은 구완회(1985)의 연구이다. 그는 『미암일기』에서 열자녀의 존재 양상을 밝혔

다. 일기류 자료를 통해 실상을 밝히는 연구로 이전까지 연구 경향을 볼 때 단연 두드러진 연구이다. 이후 노비, 열자녀, 기후, 양반의 사환과 수입, 쌀값, 지방 군관의 일상, 관료의 일상 등에 대해 연구하였다. 당시 학계에서 제도사, 사상사 중심의 연구가 보편적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들 연구는 역사 연구의 대상을 다양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둘째, 연구 영역이 매우 다양하다. 이것은 일기가 포괄하는 주제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의료, 주거 양식, 부세 징수와 민의 대응, 여성과 젠더 등 연구 주제가 다양하였다. 이점이 일기 자료의 장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일상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주제를 연구할 수 있다. 일상, 의료, 여성의 창작 활동, 양육, 교육, 사환, 수입, 선물, 여행 등 인간 삶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주제가 연구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 주제는 공간과 시간을 달리하는 외국의 사례와 비교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현재까지 이점은 매우 부진하지만, 향후 기대되는 부분이다.

셋째, 동일한 주제를 여러 일기에 적용하였다. 이를테면, 제사나 의례 실천의 경우 소개된 모든 일기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문제는 개별 일기를 대상으로 단편의 연구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렇게 개별 연구 결과는 시대를 설명하는 담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혼례 방식, 거주 방식, 제사 설행 방식 등에 대해 일기를 종합하여 일정한 경향을 찾거나⁴²⁾, 지역간 비교를 통해 특수성과 보편성을 찾는 연구가 있다. 이런 연구는 앞으로 일기에 대한 종합적인 목록과 해제를 통해서 보다 다양하게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특정 일기에 대한 연구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고, 이후 연구가 이어지지 못한 경우가 있다. 2010년 『고대일록』, 2011년 『노상추일기』, 2014년 『계암일록』, 2016년 『청대일기』, 2017년 『매원일기』, 『인재·야곡일기』 연구가 집중되었다. 이것은 해당 일기가 이 시기에 번역되고, 학술회의를 통해 집중 조명하였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후 관련 연구가 이어지지 않는 못했다는 점이다.

42) 김정운, 「17~18세기 경상도 북부지역 사족의 친족 관계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2. 관직 일기를 활용한 연구

관직 생활을 기록한 일기는 사환, 사행, 경연 등의 기록을 포함한다. 특정 관직을 수행하는 중에 일상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생활 일기의 한 부분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관직 일기 가운데 사행 기록을 활용한 것은 1970년대부터 확인되며, 본격적인 연구는 2000년대 이후에 이루어졌다. 2014년까지 30여 편이 있었으나, 최근 5년 동안은 매년 15편 정도 확인된다.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관직 일기는 사행 일기를 활용한 연구가 가장 많다. 『열하일기』를 포함할 경우 사행일기 연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런 가운데 『북막일기』(박래겸), 『서수일기』(박래겸), 『부북일기』(박계숙, 박취문)를 활용한 연구와 『총쇄록』, 『영영일기』, 『완영일기』를 활용하여 지방관의 일상을 검토한 연구가 주목된다.⁴³⁾ 이 가운데 오수창의 『서수일기-200년 전 암행어사가 밟은 5천리 평안도 길』⁴⁴⁾은 일기를 번역하고, 관련 연구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자료 본래 의미를 충분히 제공하면서 해당 시기에 대한 역사상을 설명하였다. 연구 방식의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3. 전쟁 경험 일기를 활용한 연구

전쟁 경험 일기의 연구 역시 일부 일기에 집중되고, 선행 연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한계가 있다. 전쟁 경험 일기는 2007년에 95건이 소개되었고, 이를 직접 활용한 연구는 60여 편이 확인된다. 다만 연구에 활용되는 자료는 일부에 한정되었다. 전쟁 경험 일기로는 『쇄미록』(오희문),

43) 이수환, 「조선전기 慶尙監司와 都事의 巡歷과 통치기능-『在嶺南日記』를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34, 2006 ; 오용원, 「일기(日記)를 통해 본 지방관(地方官)의 일상(日常)과 공사(公私)의 경계(境界)-오형묵(吳宏默)의 『고성총쇄록(固城叢쇄錄)』을 중심으로-」, 『남명학』 16, 2011 ; 김순석, 「『완영일록』을 통해 본 전라도관찰사의 공문서 유형과 문서식」, 『지역사회연구』 22, 2014.

44) 오수창, 『서수일기-200년 전 암행어사가 밟은 5천리 평안도 길』, 아카넷, 2015.

『용사일록』(정탁), 『고대일록』(정경운) 등이 있으며, 많은 연구가 『난중 일기』(이순신)를 활용하였다. 연구는 주로 2000년대 이후에 이루어졌으며, 대표적인 연구는 오상근의 「瑣尾錄과 吳希文의 생애-피난길에 쓴 『亂中日記』-」⁴⁵⁾와 김경수의 「壬辰倭亂 關聯 民間日記 鄭慶雲의 『孤臺日錄』 研究」⁴⁶⁾, 김정운의 「정탁(鄭琢)의 『龍蛇日記』와 왜란 극복 활동」⁴⁷⁾, 조혁연의 「『병자일기』에 나타난 17세기 전기의 私奴婢」⁴⁸⁾ 등이 있다. 지금까지 연구는 개인의 경험을 소개하는 것에서 그친 경향이 있다. 앞으로 전쟁 체험 기록들을 모아서 유형화하고, 여기에 기록된 당시 사람들의 의식을 하나의 담론으로 만들어내는 시도가 필요하다. 이를테면 ‘용사’ 일기류를 모아서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4. 강학, 유배, 여행, 고종, 공동체 활동 일기를 활용한 연구

유배 일기, 강학 일기, 여행 일기, 고종 일기와 상소, 건축, 간행 등 공동체 활동 관련 일기는 최근 새로운 자료가 소개되고 있다. 다만 최근까지 이들 일기가 연구에 반영된 경우는 적다. 독서와 강학 일기의 연구는 이상용의 「『홍씨독서록』 수록 서적의 선정기준에 대한 연구」⁴⁹⁾와 최식의 『조선의 기이한 문장-향해 홍길주 산문연구』⁵⁰⁾, 노재찬의 『서당의 일상-소눌 노상직의 서당 일지-』⁵¹⁾, 함영대의 「조선후기 근기 남인의 독서노트」⁵²⁾ 등 20여 편이 있다. 대부분 2000년대 이후에 나왔다.

45) 오상근, 「『瑣尾錄』과 吳希文의 생애-피난길에 쓴 『亂中日記』-」, 『畿甸文化』 7, 1990.

46) 김경수, 「壬辰倭亂 關聯 民間日記 鄭慶雲의 『孤臺日錄』 研究」, 『國史館論叢』 92, 2000.

47) 김정운, 「정탁(鄭琢)의 『龍蛇日記』와 왜란 극복 활동」, 『한국사상과 문화』 63, 2012.

48) 조혁연, 「『병자일기』에 나타난 17세기 전기의 私奴婢」, 『중원문화연구』 21, 2013.

49) 이상용, 「『홍씨독서록』 수록 서적의 선정기준에 대한 연구」, 『서지학연구』 30, 2005.

50) 최식, 『조선의 기이한 문장-향해 홍길주 산문 연구』, 글항아리, 2009.

51) 노재찬, 『서당의 일상-소눌 노상직의 서당 일지』 『자암일록』-, 신지서원, 2013.

52) 함영대, 「조선후기 근기남인의 독서노트-순암 안정복의 『초서롱』」, 『한국문화』 78, 2017.

독서와 강학은 생활 일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당일기』(장홍효)나 『매월일기』(김광계)에는 매일 읽은 책, 함께 공부한 사람들에 대해 기록하였다.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주로 서지학에서 다루었으며, 이후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기대된다.

유배 일기의 연구는 최강현이 『『북관노정록』 소고』⁵³⁾에서 유의양의 『북관노정록』을 소개하였고, 본격적인 연구는 2000년대 이후에 보인다. 이옥희의 「유배인의 기록을 통해 본 진도 지역의 민속문화」⁵⁴⁾와 「조선후기 유배인과 유배지의 실상, 김약행의 「적소일기」 연구」⁵⁵⁾, 김경옥의 『『艱貞日錄』을 통해 본 金樞(1805~1866)의 임자도 유배생활』⁵⁶⁾, 안대회의 「18·19세기의 음식 취향과 미각에 관한 기록-沈魯崇의 『孝田散稿』와 『南遷日錄』을 중심으로-」⁵⁷⁾이 있다. 유배 일기의 수량이 제한적인 것을 고려하면 지역사, 유배인의 일상, 음식 취향과 미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었다. 조수미의 「조선후기 한글 유배일기 연구」를 통해 유배 일기가 일기 유형의 하나로 자리하게 되었다.

고종일기는 2007년에 16건이 소개되었다. 일기의 종류에서도 매우 희소한 분야이며, 관련 연구 역시 10여 편에 그친다. 이런 가운데 김윤정의 「18세기 師服의 성격과 실제-양응수의 「축장일기」를 중심으로-」⁵⁸⁾는 고종일기를 활용한 대표적인 성과이다. 향후 새로운 자료를 통해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이다.

공동체 활동 관련 일기는 향교나 서원, 문중, 기타 가족 공동체 등이 공동의 목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작성한 일지류 기록을 상정할 수 있다.

53) 최강현, 「『北關路程錄』小考」, 『국어국문학』 62·63, 1973.

54) 이옥희, 「유배인의 기록을 통해 본 진도 지역의 민속문화」, 『남도민속연구』 19, 2009.

55) 이옥희, 「조선후기 유배인과 유배지의 실상, 김약행의 「적소일기」 연구」, 『국학연구론총』 7, 2011.

56) 김경옥, 「『艱貞日錄』을 통해 본 金樞(1805~1866)의 임자도 유배생활」, 『동방학지』 154, 2011.

57) 안대회, 「18·19세기의 음식취향과 미각에 관한 기록-沈魯崇의 孝田散稿 와 『南遷日錄』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169, 2015.

58) 김윤정, 「18세기 사복(師服)의 성격과 실제-양응수의 「축장일기」를 중심으로-」, 『국학연구』 23, 2013.

특히 조선 후기 연명 상소를 하는 과정은 집단의 활동과 의식, 그 과정에서 보이는 다양한 소리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지금까지 공동체 활동에 관한 일기를 활용한 연구는 『목판의 행간에서 조선의 지식문화를 읽다-목판과 조선시대 사회문화사연구』⁵⁹⁾가 있다. 최근 주목되는 연구는 최은주의 「조선시대 상소 일기자료의 실상과 가치」가 있다. 여기서 필자는 처음으로 상소하는 과정을 기록한 일기를 하나의 유형으로 설정하였다. 이 분야 역시 향후 관련 연구가 기대된다.

여행 일기는 2007년 164건이 소개되었고, 관련 연구는 2000년대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정치영의 「日記를 이용한 조선중기 양반관료의 여행 연구」⁶⁰⁾, 김경숙의 「17세기말 향촌 사대부의 생활과 여행-海南尹氏 尹爾厚의 『支菴日記』를 중심으로-」⁶¹⁾와 같이 역사학이나 지리학의 연구가 있고, 주로 문학 연구에서 활용하였다. 김미선의 「조선시대 한문 기행일기의 현황과 가치」⁶²⁾는 여행 기록을 일기 유형 가운데 하나로 설정하여 특징을 정리하였다. 여행 일기는 향후 지리학, 역사학에서의 활용이 기대되는 분야이다.

일기를 내용별로 구분해서 연구 동향을 정리하면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 일기를 활용한 연구는 역사학에서 가장 활발한 분야이다. 의료, 의복, 무속, 교육, 지리, 젠더, 출판 등 연구 분야가 매우 다양하다. 다만 연구 주제는 동일하고, 소재만 달리한 연구가 많다. 둘째, 연구에 활용되는 일기가 매우 제한적이다. 지금까지 다수의 일기가 소개되어 있으나 연구 대상은 제한되었고, 내용은 단순한 경향이 있다. 연구 방법의 개발이 필요한 이유이다. 셋째, 소위 종합적 검토를 표방한 연구의 모음이 있으나, 주제 사이의 상관관계가 약한 경우가 있다. 상호 관련이 부족한 가운데 같은 일기를 소재로 한 연구의 단순 모음에 그치는 경우도

59) 한국국학진흥원 편, 『목판의 행간에서 조선의 지식문화를 읽다-목판과 조선시대 사회문화사 연구』, 글항아리, 2014.

60) 정치영, 「日記를 이용한 조선중기 양반관료의 여행 연구」, 『역사민속학』 26, 2008.

61) 김경숙, 「17세기말 향촌 사대부의 생활과 여행-海南尹氏 尹爾厚의 『支菴日記』를 중심으로 -」, 『한국문화』 71, 2015.

62) 김미선, 「조선시대 한문 기행일기의 현황과 가치」, 『한국민족문화』 71, 2019.

있다. 시기와 지역을 고려하고, 여타 지역의 사정을 참고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한계는 일기 자료에 대한 전수(全數)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정보를 공유하지 못한 것이 주요한 이유라고 생각된다. 또 일기의 개념과 분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도 들 수 있다. 끝으로 연구 방법 개발이 부진한 것도 같은 방식의 연구를 반복적으로 생산하게 하는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V. 맺음말

본 연구는 일기를 활용한 연구 동향을 검토하였다. 시기별, 주제별, 일기의 종류별 연구 동향으로 나누어 개괄적으로 검토하였다. 첫째, 시기별 연구 동향이다. 1990년대 전반 일기는 ‘일기 문학’의 영역으로 자리하게 되었고, 역사학의 경우 개별 연구의 소재로 활용되었다. 1996년 처음으로 일기의 자료적 가치에 대해 주목하였고, 일기의 개념과 분류 방식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처음으로 ‘일기류 자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를 토대로 최근에는 유배(流配), 여행(旅行), 상소(上疏) 등 일기의 내용과 호남(湖南), 영남(嶺南)과 같이 일기 생산 지역 등으로 분류하여 연구 영역이 세분화 되었다. 시기별 연구 동향을 보면 일기의 가치는 지난 20년 동안 크게 변화하였다.

둘째, 주제별 연구 동향이다. 연구 주제는 다양하고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일기의 개념과 분류 방식에서 기록 주제, 기록 시점, 문체 등 일기를 분류하는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다. 요컨대 조선시대 사람들의 시각으로 ‘일기’를 이해하고, 정의하고 분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논의는 향후 일기의 개념과 분류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셋째, 일기 내용별 연구 동향이다. 지금까지 생활 일기를 활용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관직이나 여행 기록을 활용한 연구로 이어졌다. 생활 일기를 활용한 연구의 비중이 절대적이지만, 새로운 일

기가 소개되면서 연구 대상이 크게 확대되는 추세이다. 지난 20년 동안 일기를 활용한 연구는 양적, 질적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일기는 주관적 기록이다. 관찰 기록이 포착하기 어려운 개인의 체험과 인식을 보여준다. 인간의 삶을 주제로 한 다양한 방식의 역사를 구성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더이상 주관적 기록이라는 일기의 특징은 한계일 수 없다.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조명하는 것에서 역사의 목적을 찾는다면 매우 유용한 자료이다. 다만 지금까지 일기에 대한 논의는 개별 연구자의 노력으로 이루어져 왔다.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연구자들이 함께 일기 기록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 이 논문은 2020년 2월 1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0년 2월 17일부터 3월 4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0년 3월 5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 鄭求福, 「朝鮮朝 日記의 資料的 性格」, 『정신문화연구』 19-4, 1996.
- 정하영, 「朝鮮朝 ‘日記’類 資料의 文學史的 意義」, 『정신문화연구』 19, 1996.
- 염정섭, 「조선시대 일기류 자료의 성격과 분류」, 『역사와 현실』 24, 1997.
- 황위주, 「조선시대 일기자료 목록」, 『(국역)조선시대 서원일기』, 한국국학진흥원, 2007.
- 최은주, 「조선시대 일기 자료의 실상과 가치」, 『大東漢文學』 30, 2009.
- 황위주, 「朝鮮時代 日記資料와 『秋淵先生日記』」, 『대동한문학』 30, 2009.
- 황위주, 「日記類 資料의 國譯 現況과 課題」, 『고전번역연구』 1, 2010.
- 정우봉, 「조선시대 국문 일기문학의 시간의식과 회想的의 문제」, 『古典文學研究』 39, 2011.
- 김대현·김미선, 「호남지방 일기자료 연구의 현황과 과제」, 『호남문화연구』 58, 2015.
- 김미선, 「문집 부록에 수록된 일기의 양상과 의의」, 『국학연구』 29, 2016.
- 김미선, 「호남문집 소재 일기류 자료의 현황과 가치」, 『국학연구』 31, 2016.
- 박현순, 「문집을 통해 본 조선시대의 일기와 일기쓰기」, 『朝鮮時代史學報』 79, 2016.
- 이성임, 「16~17세기 일기의 傳存 양상」, 『朝鮮時代史學報』 89, 2019.

Abstract

Personal Diaries of Joseon and Research Trends

Kim, Jeong-un

This study set out to review research trends based on Personal Diaries. For this purpose, the investigator generally reviewed the research trends by period, research outcomes by topic, and research trends by type of journal. In the former half of the 1990s, journals were established as part of journal literature and used as materials for individual research in the field of historical studies. In 1996, there was the first focus on the value of journals as materials with journals settling down as journal-type materials for the first time through discussions about the concept and classification method of journals. Based on this, the research areas have recently become segmented with journals classified by content into exile, travel, and appeal journals and classified by the region into Honam and Yeongnam journals. A look at the research trends by period shows huge changes in the value of Personal Diaries over the last 20 years.

There were also diverse and profound discussions in the aspect of research topics. There were efforts to review again the classification criteria of journals including the subjects of recording, the perspectives of recording, and styles based on the concept and classification method. The gist is that journals should be defined, classified, and understood from the viewpoint of Joseon people. These

discussions have huge implications for the future concepts and classifications of journals. The investigator also examined research trends by the type of journal and found that a lot of previous research made use of life journals, life in government office, and travel records, in that order. There was tremendous growth both in quantity and quality of research based on journals over the last 20 years.

keywords :

Personal Diaries, daily record, concept of journal, classification of journal, research on journal